



## 허정무호 29일 예비명단 30명 발표

최종 23명 확정 앞서 옥석가리기 차원

박지성·이동국 등 해외·국내파 총망라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참가할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하기 전에 예비 명단 30명을 먼저 발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남아공 월드컵에 나갈 선수들을 뽑으려고 29일 예비 엔트리를 공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월드컵 개막 한 달 전인 5월 12일까지 예비 명단 30명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내고 2주 전인 5월 말까지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팀은 23명을 확정하기 전에 '대국전사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후보들을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

허정무 감독은 K-리그 주축인 예비 명단 선수들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불러 모아 훈련을 하고 나서 5월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이나 한 일전을 위해 출국하는 같은

달 22일 직전에 최종 23명을 주린다는 계획이다.

허 감독은 5월 초에 대표팀 소집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월 1, 2일과 5일, 8, 9일 K-리그 경기를 마치고 나서 선수들을 뽑아줄 수 있다는 태도여서 소집 일정을 조율 중이다. 예비 명단 30명에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파와 최근 5경기 연속 득점포를 거둔 중인 공격수 이동국(전북)을 비롯한 K-리거가 총망라될 전망이다.

해외파는 박지성 외에 오른쪽 허벅지 근육 부상 여파로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 불참했던 간판 골잡이 박주영(AS모나코), 안정환(다롄스더), 미드필더 이청용(불란), 기성용(셀틱), 김남일(톨 톰스끼), 수비수 이영표(알 힐랄), 차두리(프라이부르크),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이근호(이와타), 곽태휘(교토), 이정수(가시마), 김보경(오이타)이 차출 후보다.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임대 선수로 국내 무대에 돌아온 조원희, 김두현과 대표팀 차출되고 부상 여파로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 뛰지 못했던 수비수 강민수(이상 수원)도 발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월 3일 코트디부아르와 원정 평가전에 참가했던 23명이 대부분 포함되고 부상 재활 중인 염기훈(수원), 설기현(포항)도 일단 예비 명단이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FIFA 월드컵 트로피 공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우승팀에 수여될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트로피가 드디어 한국에 선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FIFA 월드컵 트로

피 공개 행사를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종 구 남대문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겸 FIFA 부 회장, 허정무 국가대표팀 감독, 이창열 한국 코카콜라 사장, 힐튼 앤토니 데니스 주한 남 아공 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FIFA 월드컵 트로피는 지난해 9월 21일 스위스 FIFA 본부에서 시작돼 다음 달 까지 225일 동안 총 86개국을 돌면서 진행될 계획으로, 한국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박3 일 일정으로 행사가 열린다.

/연합뉴스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팀은 1990년 이후의 대학생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다.

친선대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한국과 일본, 미국, 세네갈, 캐나다, 이집트 등 대표팀과 현지 클럽 4개팀, 브라질, 멕시코의 클럽팀 등 총 12개 팀이 참가한다.

홍명보 감독은 "외국 국가대표팀과 2-3경기를 포함해 총 4개임 정도를 벌일 예정이다.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년 1월 리그 캠페인 칼링컵 준결승에서 1-5로 대패한 적이 있지만,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북런던 맞수 토트넘에 패한 것은 1999년 11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3위 아스널은 이날 패배로 네 경기를 남겨 두고 승점 71(25승5무7패)에 머물며 선두 헬시(24승5무5패·승점 77)와 6점 차로 벌어져 리그 우승은 힘들어졌다.

/연합뉴스

## 아스널, 토크넘에 11년만에 무릎…우승 멀어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강호 아스널이 토크넘 풋스퍼와 '북런던 더비'에서 11년 만에 셀리그 우승도 힘들어졌다.

아스널은 15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선수들을 불러 모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은 홍명보 감독이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 호남대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 아카데미 개소

8월 30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무료 운영

호남대가 스포츠산업 인력개발원(원장 조규정)에서 지역스포츠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육성 아카데미를 개소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 간 매주 월·수요일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운영된다.

이 아카데미는 앞으로 5년간 운영되며, 관광산업 현장 종사자와 체육단체 실무자, 관리자, 스포츠산업 및 체육전공 대학생 등이 대상으로 90시간의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습수업은 전국의 스포츠 및 여가체육 관광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외국 선진현장 탐방의 기회도 주어진다.

총 50명을 모집하고 이를 중 30%는 현장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 호남대스포츠 산업인력개발원 (<http://hs1.honam.ac.kr>)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혹은 개발원(062-940-3706)으로 직접 문의하여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규정 원장은 "지금까지 체육인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 경제적 요인 개발과 수익 창출은 기업에 의존해 왔다"면서 "이제 스포츠 산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다"고 개소 배경을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송정중학교 하키·레슬링 창단식

2010. 04. 15. (목) 15:00

광주 송정중 레슬링·하키부 창단

광주 송정중(교장 강경환)이 15일 오후 3시 학교 체육관에서 레슬링·하키부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식에는 강경환 교장을 비롯, 광주레슬링협회와 하키협회 회장과 재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레슬링부(코치 노일권)는 김준영 등 7명, 하키부(코치 양승환)는 김진아 등 18명의 선수로 각각 구성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이소라 챌린지테니스 8강

광주세계장애인탁구 조직위 현판

이소라(원주여고1)가 김해 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총상금 2만5천달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단식 8강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소라는 15일 김해 능동코트에서 열린 단식 2회전에서 후지와라 리카(203위·일본)에게 기권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 6번 시드를 받은 후지와라는 밸록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소라는 국내 여자테니스 사상 최연소로 챌린지저그 대회 단식 8강에 올랐다. 챌린지 대회는 투어 대회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세계 랭킹 100~300위대 선수들이 주로 출전한다.

대회 조직자는 이번 대회 기간 중 참가선수 접수와 선수촌 배치 등 대회 주업무와 자원봉사·통역 등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칠자한 준비로 외국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는 50개국 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5일부터 열린 10일에 돌입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